

광주시교육청, 2020 중학교 입학배정계획 설명회 개최

초등학교 부장 교사 등 참여해 나이스 기반 중학교배정시스템 교육



광주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지난 11일 학교시설지원단 대강당에서 2020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설명회를 초등학교 부장 교사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0학년도 배정

계획과 더불어 나이스 기반 중학교 배정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병행하여 초등학교에서 배정업무를 진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연수에 참석한 6학년 담당교사는 “이번 연수가 중학교 입학 배정업무를 담당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학상담에 오늘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학교 배정은 12월 31일 재학 중인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2020년 1월 21일 ‘나이스 기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학군별 컴퓨터 추천 방식으로 진행하며, 그 결과는 다음날인 1월 22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목포교육지원청, 초등 학부모를 위한 수학교실 운영

목포교육지원청은 지난 9일 목포수학교육지원센터에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9. 초등 학부모 수학교실’을 운영했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행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녀의 수학 학습지도 방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수학콘서트와 초등교육과정과 연계한 보드게임, 매쓰투어(MATH TOUR) 등 다양한 수차례험활동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오후에 진행된 매쓰투어(MATH TOUR) 프로그램은 ‘목포수학사랑연구회’에서 개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달산과 근대역사관, 갑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등을 돌아보고 수학 미션을 해결하면서, ‘자연, 수, 삶,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목포의 근대 역사를 돌아보고, 생활 속에서 수학을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번 초등 학부모 수학교실에 참여한 압해동초등학교 학부모는 “수학의 기초 과정을 잘 알 수 있는 유익한 하루였으며, 기회가 된다면 더 자주 참여해서 수학이 어렵지 않게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하며, “이번 학부모 수학교실 참여로 수학이 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2019. 초등 학부모 수학교실’은 지난 9일부터 16일, 23일, 30일 네 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전남교육청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버스킹 연다



물 전시와 활동 영상 상영 등 다채로운 체험형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공연은 기획부터 운영 및 진행, 마무리 정리까지 프로젝트팀 주도로 실시되며,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 미래도전’ 홈페이지(<http://www.jfc.j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9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가 청소년들의 꿈을 향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 버스킹을 개최한다.

청소년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버스킹 공연은 11월 16일 오후 2시부터 서부권(무안 남악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동부권(순천 조래 호수공원 야외공연장), 중부권(나주 빛가람 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버스킹에는 서부권 목포영화중 ‘시나브로’ 외 10팀, 동부권 구례중 ‘10대 밴드’ 외 6팀, 중부권 영산성지고 ‘옥타곤밴드’ 외 6팀 등 총 25팀이 참가해 그동안 익혀온 실력을 뽐내게 된다. 대중가요, 국악 앙상블, 오케스트라, 비보잉, 방송댄스, 사물놀이, 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무대에 올려진다.

특히, 서부권과 중부권은 지역별 활동 나눔 페스티벌과 연계해 활동 부스, 프로젝트 활동팀 결과

김성에 학생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팀 버스킹 공연을 통해 협업 능력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국내외 최종 선발된 510팀의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는 2020년 2월까지 팀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기획과 실행·평가·성찰 등 모든 과정을 학생 스스로 추진토록 하고 있다.

보성교육청, 학교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연수 성료

민주적인 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 실시 교원 스스로 실행연수 실시하는데 중점



보성교육지원청은 11월과 12월 이틀에 걸쳐 보성지역 중학교 교장, 교감, 교육과정 담당교사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실행연수’를 생활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20학년도 학교 교육과정을 수립할 때 학교 구성원이 함께 지혜를 모아 교육목표

를 세우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며 성장하는 민주적인 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연수의 주요 내용으로 △교육 과정에 대한 정의 내리기 △내가 꿈꾸는 학교에 대한 생각 나누기 △학교 교육의 핵심 가치 찾기 △학교 교육목표 함께 세우기 △교

육목표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재구성하기 등을 실제 학교 여건에 맞게 모둠별로 작성하고 발표를 통해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연수를 받은 교원이 해당 학교에서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자체적인 실행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중점을 뒀다”고 이번 연수의 취지를 전했다.

연수에 참여한 심우상 교감(보성여중)은 “학교 교육과정을 직접 만들어 보니 구성원의 지혜를 함께 모으는 것이 중요함을 새삼 느꼈다”며, “앞으로도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주기적인 소통의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백남근 교육장은 “이전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중심·역량중심 교육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성=인구일 기자

무안교육지원청 - 국립목포대학교, 교육협력 MOU 체결

무안교육지원청과 국립목포대학교는 지난 11일 무안교육지원청에서 국립목포대학교사범대학교 학장과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교육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 협약을 통해 민주 시민교육 강화, 진로 맞춤형 중·고교 교육 확대, 창의융합 지역인재 육성, 우수교원 양성 지원 협조, 선택중심 방과후학교 활성화

추진, 중·고교-대학 연계 멘토링 사업 추진, 초·중·고교 외국어 교육(중국어, 영어)활성화 추진, 목포대학교 교원양성기관 교육실습 협력 및 성과 제고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교육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종근 목포대학교사범대학교 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무안지

역의 초·중·고·대학의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철 교육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의 초·중·고·대학이 함께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은 전남 교육 실현에 큰 힘을 얻게 되었다. 지역교육네트워크의 큰 축으로 양 기관이 적극 협조하자.”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